

자유학기제에서 의생활 영역의 활동과 요구도

김 경 숙

가톨릭관동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교수

A Study of Curriculum of Clothings Area' Activity and Need at the Free Learning Semester

Kyung-Sook Kim

Prof.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Catholic Kwandong University

(2017. 9. 14 접수; 2017. 12. 20 채택)

Abstract

This study determined the reality of how middle school students are doing with their free learning semester and what they think about it. Also, the study looked at how many parts of Home Economics and the area of clothing curriculum are being taken and, especially, how many parts of this curriculum content are being required as free learning semester activities. This study aims to not only develop free learning semester activities according to student demand but also at providing a basic resource that can help activate the area of clothing curriculum in subject of Home Economics. In short: 1) Middle school students are attending activities such as career exploration activities, student selection activities, club activities, arts activities and physical education activities thoroughly through the free learning semester. These mostly take place in school and most of the students were taught by teachers from their own school. 2) The students are aware that the free learning semester' s activities are helpful for them. The most helpful part was that it reduces the load they get from the school' s exam and also the fact that they can investigate areas in which they are interested. 3) The number of students who have already taken or are taking activities related to Home Economics were 145, which is about 1/3 of the 451 students overall. The area where the most of the activities were held out of those activities related to Home Economics was the domain of food while the clothing curriculum accounted for a very small part compared to it. 4) The study found that need for a clothing curriculum for middle school student free learning semesters was about 2.79 on a scale from 1 to 5. The areas of most interest in this topic were highly related to 'making and mending clothes'.

Key Words: Free learning semester(자유학기제), Clothing curriculum(의생활 영역), Need(요구도)

⁺Corresponding author ; Kyung-Sook Kim
Tel. +82-33-649-7761 Fax. +82-33-641-1010
E-mail : kskim@cku.ac.kr

I. 서론

전국의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2016년부터 실시된 자유학기제는 학생들이 과도한 경쟁과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보다 자유롭고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꿈과 끼를 찾고 미래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로 성장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교육부, 2013). 자유학기제가 처음 도입된 2013년에는 전국의 42개교가 연구학교로 지정되어 시범 운영되었고, 2014년에는 811개교, 2015년에는 2,550여개의 학교가 시범 운영되었다. 강원도의 경우에는 2014년에 32개교의 시범운영을 거쳐 2016년 전국 확대 운영에 앞서 2015년부터 도내 모든 중학교의 자유학기제 활동을 추진하였다.

올해는 전국의 모든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가 운영된 지 2년째가 되며, 강원도의 경우 3년째가 된다. 내년부터는 중학교 1학년 한 학기동안 실시하던 자유학기제를 중학교 1학년 일 년 동안 실시하는 자유학년제로 전환되어 실시될 예정이다. 자유학년제로 하는 경우 1학년 1학기는 준비학기로, 2학기는 자유학기로 운영하고자 하는 방안이다. 그동안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 등에서는 시범운영 결과와 모범사례 등 모아 각종 사례집과 보고서들을 발표하여 다른 여러 학교들의 자유학기제 운영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6; 강원도교육청, 2015; 강원일보사, 강원도 교육청, 2015).

자유학기제가 도입된 지 아직 몇 년 되지 않았지만, 그동안 가정교과의 참여와 활동을 위하여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학술대회(한국가정교과교육학회 학술대회, 2013, 2017)들이 몇 차례 개최되었고, 자유학기제 운영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논문들도 발표되어 왔다(김은정, 2013a; 이운정, 2013; 김성숙 외, 2017; 배운정, 이운정, 2017; 이은영 외, 2014). 자유학기제에서 활용될 수 있는 교과는 진로와 연계된 가정교과를 포함한 모든 교과가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중 가정교과는 교과의 실천교과적인 성격이 강조되어 있고, 인간에게 직접 봉사하는 사명지향적인 학문이라는 가정학의 특성(채정현 외, 2017)으로 인해 자유학기제에서 보다 다양한 활동으로 응용될 수 있다. 특히 의생활 영역은 생활 수행의 실천역량을 갖추게 함으

로써 가정생활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기초영역(교육부, 대전광역시교육청, 2016)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자유학기제에서 보다 다양한 활동으로 응용되고 활용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는 자유학기제의 자율과정 활동에서 중학생들은 자유학기제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고, 자유학기제 활동 중에서 가정교과와 의생활 영역의 활동은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중 의생활 영역의 내용들에 대하여 자유학기제 활동으로 활용하기를 얼마나 요구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동안 자유학기제에서 가정교과와 관련해서는 진로교육과의 연계성(이지연, 2013 a; 김은정, 2013b), 가정교과 관련 운영 실태(이은영 외, 2014), 가정교과 교사의 인식(김성숙 외, 2017), 교과과정 개발(배운정, 이운정, 2017) 등의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이 가운데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유학기제에서 가정교과의 활동과 의생활 영역에 대해서 어떠한 내용을 활동하고 싶은지를 알아보는 구체적인 연구는 아직 없었다. 교육부(2013)에서는 자유학기제가 특정하기로 끝나는 활동이 아니고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연계적인 진로개발과 자유학년제로의 확장을 예고하고 있다. 따라서 효과적인 자유학기제의 운영을 위해 학생들의 요구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필요한 일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자유학기제에서 가정교과의 의생활 영역 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자유학기제의 의미와 활동

자유학기제란 중학교 교육과정 중 한 학기동안 학생들이 중간기말고사 등 시험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수업 운영을 토론, 실습 등 학생 참여형으로 개선하고 진로탐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교육부, 2013). 이를 통해 학생들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것, 하고 싶어 하는 것,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하는 진로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자유학기제에서 진로교

육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이지연(2013b)은 자유학기제와 진로교육은 지향하는 철학 및 기본 방향성, 지향하는 교육내용, 지향하는 교수·학습방법 등이 상호 일치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자유학기제는 진로중심의 활동일 수 밖에 없다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제시된 교육부의 자유학기제 추진 목적은 학생들이 스스로 꿈과 끼를 찾고, 자신의 적성과 미래에 대해 탐색, 고민, 설계하는 경험을 통해 지속적인 자기성찰 및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지식과 경쟁 중심 교육을 자기주도 창의학습 및 창의성, 인성, 사회성과 같은 미래지향적 역량 함양이 가능한 교육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공교육의 변화 및 신뢰회복을 통해 학생이 행복한 학교생활을 제공토록 하겠다는 것이다(교육부, 2013).

이러한 자유학기제 운영을 위하여 교육부는 체계적인 진로탐색 기회의 확대, 관심과 흥미를 촉진하는 체험참여형 프로그램 강화, 학생의 참여와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교수·학습방법의 다양화, 학교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유연한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 자유학기제의 취지에 맞는 성취기준평가방법 마련과 같은 교육과정 운영을 요구하고 있다(교육부, 2013). 자유학기제를 위한 교과과정의 운영을 통하여 학생들은 시험의 부담에서 벗어나 다양한 동아리 활동과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체계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탐색해 볼 수 있으며,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수준과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수업방법과 프로그램 등을 개발해 나갈 수 있다.

자유학기제 기간 동안의 운영은 오전에는 공통 과정에 해당되는 기본교과들을 편성하여 진행하고, 오후에는 자율과정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다. 이 기간 동안 학생들은 시험의 부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자신의 미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효과적인 자유학기제 운영을 위하여 교육부(2013)에서는 자율과정의 주요활동에 따라 진로탐색 중점모형, 학생선택 프로그램 중점모형, 동아리활동 중점모형, 예술·체육 중점모형의 4가지 중점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각각의 중점모형을 살펴보면, 진로탐색 중점모형은 학생들이 적성과 소질을 탐색하여 스스로 미래를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학생선택 프

로그램 중점모형은 수요자인 학생 중심의 선택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습동기를 유발토록 함을 강조하고, 동아리활동 중점모형은 자유학기제 활동을 동아리활동 위주로 할 수 있도록 자율과정을 제공하며, 예술·체육 중점모형은 예술·체육과 관련한 활동을 다양화하고 내실화 할 수 있는 교육과정의 편성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교육부, 2013; 이은영 외, 2014). 이러한 모형들은 학교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한 가지 모형 또는 몇 가지 모형을 융합한 모형 등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자유학기제를 실시 후 결과를 모은 교과 연계 수업 및 활동 사례집과 보고서들에서 학생들은 ‘교과수업이 재미있게 변화했다’, ‘친구들과 협력하면서 재미를 느꼈다’, ‘잠깐 쉴 수 있는 기간이었다’ 등 자유학기제가 요구하는 방향에서의 긍정적인 반응들이 나타나고 있다(강원일보사, 강원도교육청, 2015; 강원도교육청, 2015;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6; 홍창남, 김혜영, 2016). 이 외에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는 자유학기제 운영에 따른 직무부담에 관련한 연구들도 진행되고 있다(김이경, 민수빈, 2015). 교사들은 이외에 수업의 변화 필요성과 학교의 자율성이 필요하다는 점들도 제시하고 있다

2. 자유학기제에서 가정교과 및 의생활 영역 활동

가정교과는 가족을 포함한 인간에게 직접 봉사하는 사명지향적인 인적분야에 해당되는 학문이다. 브라운과 파올루치(Brown & Paolucci, 1979; 채정현 외, 2017. 재인용)는 가정교과는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순수학문이나 환경의 해석을 통한 창작을 목적으로 하는 해석적 학문이라기 보다는 순수학문으로부터 지식을 종합하고 조직하며 각자의 지식에 대한 유효성 검토하는 사명지향적 학문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학문적 특성에 따라 가정교과는 실천교과, 기능교과, 생활교과, 응용교과, 종합과학, 통합과학, 규범과학 등으로 그 성격이 매우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채정현 외, 2017; 장명옥, 1981; 유태명, 2003).

우리나라의 교육과정 속에서의 가정과교육의 목표를 살펴보면, 7차 교육과정의 2007 개정시기에는 ‘나의 삶, 가정생활, 산업기술의 세계에 대한

지식, 능력, 가치 판단력을 함양하여 건강한 개인 및 가정생활을 영위하여 현재와 미래 가정생활과 사회를 주도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가 목표로 제시되고 있다. 2009 개정 시기에는 '가정생활에 대한 지식, 능력, 가치 판단력을 함양하여 개인 및 가정생활을 영위하여, 현재와 미래 가정생활을 주도할 수 있는 역량과 태도', 2015 개정시기에는 '가정생활에 대한 지식, 능력, 가치 판단력을 함양하여 실천적 문제 해결을 위해 자립적인 삶을 영위하여 현재와 미래의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생활을 주도적으로 영위함을 가정교과의 목표로 하고 있다(채정현 외, 2017).

이와 같이 가정교과의 학문적 특성과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의 교육목표를 살펴볼 때, 가정교과는 자유학기제에서 지향하고 있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신의 적성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미래의 진로를 설계할 수 있는 자기주도적 창의학습과 미래지향적 역량을 함양토록 한다는 취지와 부합할 수 있는 교과라 하겠다.

2013년 자유학기제가 도입되면서, 자유학기제에서 지향하고 있는 진로교육의 방향에 맞춰 가정교과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관점의 연구들이 여러 편 발표되어 왔다.

교과 통합 진로교육을 중심으로 자유학기제 운영방안을 살펴 본 이지연(2013)은 학령기 청소년의 진로교육이 중요하며, 이는 교과교육과 연계된 진로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고, 실천 방법으로는 자유학기제를 활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김은정(2013b)은 자유학기제 시행에 따라 기술가정교과 교육과정 분석 및 가정과교육에서의 진로교육 연구의 동향을 탐색하고, 교과를 중심으로 한 교과 통합 진로교육과 진로교육에서의 핵심성취기준 추출이 중요하다는 강조하면서 자유학기제에서의 가정교과의 진로교육 방향 및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가정교과와 자유학기제에서의 진로교육을 연계할 수 있는 것은, 가정교과가 실천적 성격을 가진 교과로서 생활 속에서 직면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학습자가 자립적인 삶의 의미를 깨달아 자기 주도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며, 일과 직업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을 형성하여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는 데 중점을 두는 교과(교육부, 2015)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운영하는 자유학기제 Web Site를 이용하여 42개 1차 연구학교를 대상으로 가정교과와 관련한 운영 실태를 조사 연구한 이은영 외(2014)는 자유학기제에서 가정교과를 시행한 학교는 전체의 약 2/5정도인 17개 학교였으며, 통합과정에서의 수업형태는 교과융합, 진로연계, 주제중심통합, 학생활동 참여중심, STEAM 교육, 학생선택 프로젝트 학습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자유학기제의 목적인 자기주도 창의학습 및 미래지향적 역량함양에 부합되고 있었다고 하였다. 그 중 가정교과의 진로탐색 활동은 교외체험활동이 특히 많았고, 가정교과의 영역별 활동 빈도수는 식생활 영역의 빈도수가 가장 많았다고 하였다.

서울과 경기도 지역의 중학교 가정과 교사를 대상으로 자유학기제 운영에 대한 가정과 교사의 인식을 살펴본 김성숙 외(2017)의 연구에서 자유학기제에 대한 가정과의 역할은 체험학습 위주의 경험을 통해 '일과 직업에 대한 건전한 태도를 갖게 한다'는 점이었고, 자유학기제에 대한 가정과 교사의 역할은 '생애 설계적 관점에서 진로교육을 지도한다'는 인식이 가장 강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가정과 교사들은 자유학기제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으나 현장적용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배운정과 이운정(2017)은 2015 중등 가정교과 교육과정의 ESD 내용 분석과 자유학기제 수업의 교수·학습지도안 개발을 위하여 가정교과 중 ESD 역량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의생활 영역과 식생활 영역을 대상으로 교수·학습지도안을 개발하여 자유학기제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상과 같이 그동안 자유학기제와 관련하여 가정교과에서는 진로교육과의 연계를 활용한 공통성, 가정교과와 관련한 자유학기제 운영실태, 자유학기제에 대한 가정과 교사의 인식, 자유학기제에서 활용 할 수 있는 가정교과 영역별 교수·학습지도안 개발 등의 연구들이 진행되어 오고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문제

연구문제 1 : 자유학기제 활동실태(유형, 장소,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배경

변인		빈도	%	변인		빈도	%
지역	시	314	69.6	학교성적	상	136	30.2
	군	137	30.4		중	233	51.7
성별	남	226	50.1		하	82	18.2
	여	225	49.9	진로계획	있다	183	40.6
학년	1학년	219	48.6		약간	222	49.2
	2학년	232	51.4		없다	46	10.2
전체		451명					

방법, 담당자)는 개인적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 자유학기제 활동에 대한 인식은 개인적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 자유학기제 활동에서 가정교과 및 의생활 영역 관련 활동은 개인적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4 : 의생활 영역에서 자유학기제 활동으로 하고 싶은 내용은 무엇이며, 이는 개인적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2. 조사도구의 구성

본 연구는 질문지법을 사용하였다. 질문지는 자유학기제 활동에 대한 중학생의 요구도 등을 알아볼 수 있는 검사지가 아직 개발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중등학교의 가정과 교사 및 교육전문가와 의 논의를 거쳐 개발한 후 예비조사 등을 통해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질문지는 조사대상자의 개인적 변인과 자유학기제 활동실태, 자유학기제 활동에 대한 인식, 가정교과 활동 유무, 자유학기제 활동에서 의생활 영역 활동 요구도를 측정하기 위한 내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사대상자의 개인적 변인은 지역, 성별, 학년, 학교성적, 진로계획으로 하였다. 자유학기제 활동에서 의생활 영역 활동 요구도는 자유학기제를 실시하는 대상 학교가 중학교이므로 「기술·가정」교과 중 의생활 영역에 해당되는 ‘의복마련과 관리’ 단원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내용들을 종합하여 작성하였다. 의생활 영역 활동 요구도와 관련한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서 요구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관련 내용을 자유학기제 활동으로 해보고 싶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를 위한 요구

도 조사도구의 신뢰도 점수(Cronbach's α 계수)는 .90 ~ .94의 범위로 전체 .95였다.

3.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은 강원도 영동지역의 시와 군 지역에 재학 중인 중학교 1, 2학년 남녀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 시기는 2017년 5월 22~30일에 예비조사를 거쳐 10월 10일부터 17일까지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배부된 500부의 질문지중 474부가 회수되었으며, 부실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 451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배경은 〈표 1〉과 같다.

4. 자료의 분석방법

본 연구를 위하여 사용된 통계분석방법은 Cronbach의 α 계수, 빈도, 백분율, 평균(M), 표준편차(SD), χ^2 , t-test, F-test, ANOVA와 사후검증으로 Duncan's Multiple Ranges Test를 사용하였으며, SPSS를 이용하였다.

IV. 연구결과

1. 자유학기제 활동실태

1) 개인적 변인에 따른 자유학기제 활동유형

자유학기제 활동에서 중학생들은 어떠한 유형의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참여한 활동유형은 중학생의 개인적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

〈표 2〉 개인적 변인에 따른 자유학기제 활동 유형

구분		진로탐색활동		학생선택활동		동아리활동		예술체육활동		전체	
		참여	불참	참여	불참	참여	불참	참여	불참		
지역	시	n	166	148	166	148	178	136	188	126	314
		%	52.9	47.1	52.9	47.1	56.7	43.3	59.9	40.1	
	군	n	91	46	97	40	98	39	88	49	137
%	66.4	33.6	70.8	29.2	71.5	28.5	64.2	35.8			
χ^2		7.15**		12.62***		8.85**		.004			
성별	남	n	116	110	117	109	125	101	118	108	226
		%	51.3	48.7	51.8	48.2	55.3	44.7	52.2	47.8	
	여	n	141	84	146	79	151	74	158	67	225
%	62.7	37.3	64.9	35.1	67.1	32.9	70.2	29.8			
χ^2		7.98**		5.91**		6.61**		15.40***			
학년	1	n	184	35	184	35	181	38	182	37	219
		%	84.0	16.0	84.0	16.0	82.6	17.4	83.1	16.9	
	2	n	73	159	79	153	95	137	94	138	232
%	31.5	68.5	34.1	65.9	40.9	59.1	40.5	59.5			
χ^2		126.93***		115.71***		82.49***		86.05***			
성적	상	n	92	44	87	49	92	44	98	38	136
		%	67.6	32.4	64.0	36.0	67.6	32.4	72.1	27.9	
	중	n	131	102	141	92	147	86	140	93	233
%	56.2	43.8	60.5	39.5	63.1	36.9	60.1	39.9			
하	n	34	48	35	47	37	45	38	44	82	
%	41.5	58.5	42.7	57.3	45.1	54.9	46.3	53.7			
χ^2		14.42***		10.49**		11.65**		14.49***			
진로계획	있다	n	108	75	107	76	120	63	114	69	183
		%	59.0	41.0	58.5	41.5	65.6	34.4	62.3	37.7	
	약간	n	130	92	132	90	133	89	134	88	222
%	58.6	41.4	59.5	40.5	59.9	40.1	60.4	39.6			
없다	n	19	27	24	22	23	23	28	18	46	
%	41.3	58.7	52.2	47.8	50.0	50.0	60.9	39.1			
χ^2		5.15		.84		4.06		.16			
전체	n	257	194	263	188	276	175	276	175	451	
	%	57.0	43.0	58.3	41.7	61.2	38.8	61.2	38.8		

※ *p<.05 **p<.01 ***p<.001

해보았다. 자유학기제 활동유형은 교육부가 제시한 진로탐색활동, 학생선택활동, 동아리활동, 예술체육활동으로 분류하여 각 활동에 대한 참여여부를 각각 표기토록 하였다.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인 중학생들은 진로탐색

활동(257명), 학생선택활동(263명), 동아리활동(276명), 예술·체육활동(276명)에 57~61%의 비율로 모든 활동에 참여하고 있었다.

개인적 변인에 따라서 진로탐색활동은 시 지역 보다는 군 지역 학생의 경우(p<.01),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의 경우(p<.01), 2학년 학생 보다는 1학

〈표 3〉 개인적 변인에 따른 자유학기제 활동장소

구분			학교 내		지역사회의 대학 및 각종기관		기타		전체
			참여	불참	참여	불참	참여	불참	
지역	시	n	309	5	13	301	2	312	314
		%	98.4	1.6	4.1	95.9	0.6	99.4	
	군	n	134	3	42	95	1	136	137
%		97.8	2.2	30.7	69.3	0.7	99.3		
χ^2		3.55		62.63***		.01			
성별	남	n	220	6	17	209	1	225	226
		%	97.3	2.7	7.5	92.5	0.4	99.6	
	여	n	223	2	38	187	2	223	225
%		99.1	0.9	16.9	83.1	0.9	99.1		
χ^2		2.02		9.24**		.34			
학년	1	n	218	1	20	199	1	218	219
		%	99.5	0.5	9.1	90.9	0.5	99.5	
	2	n	225	7	35	197	2	230	232
%		97.0	3.0	15.1	84.9	0.9	99.1		
χ^2		4.24*		3.73*		.28			
성적	상	n	134	2	15	121	1	135	136
		%	98.5	1.5	11.0	89.0	0.7	99.3	
	중	n	231	2	29	204	1	232	233
%		99.1	0.9	12.4	87.6	0.4	99.6		
하	n	78	4	11	71	1	81	82	
	%	95.1	4.9	13.4	86.6	1.2	98.8		
χ^2		5.73		.30		.59			
진로 계획	있다	n	181	2	22	161	1	182	183
		%	98.9	1.1	12.0	88.0	0.5	99.5	
	약간	n	217	5	29	193	2	220	222
%		97.7	2.3	13.1	86.9	0.9	99.1		
없다	n	45	1	4	42	0	46	46	
	%	97.8	2.2	8.7	91.3	0.0	100.0		
χ^2		.82		.69		.53			
전체	n	443	8	55	396	3	448	451	
	%	98.2	1.8	12.2	87.8	0.7	99.3		

※ *p<.05 **p<.01 ***p<.001

년 학생의 경우(p<.001), 학교성적이 낮은 학생보다는 높을수록(p<.001) 더 많이 선택하여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계획 여부에 따라서는 계획이 아직 없는 경우보다는 있는 경우가 더 많이 진로탐색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이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특히 2학년 학생의 경우보다 1학년 학생들의 진로활동 참여율이 월등히 높았다. 이는 자유학기제를 실시하는 기간이 증

가하면서 학생들이 자유학기제의 취지를 이해하고 자신들의 미래 진로에 대한 탐색을 점차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려는 경향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학생선택활동은 시 지역보다는 군 지역의 학생이(p<.001),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의 경우(p<.01), 2학년 학생 보다는 1학년 학생의 경우(p<.001), 학교성적이 낮은 학생보다는 좋은 학생이(p<.01)

더 많이 선택하여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군지역의 학생, 여학생, 1학년 학생, 학교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학생선택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동아리활동의 경우도 진로탐색활동과 학생선택활동과 마찬가지로 지역(p<.01), 성별(p<.01), 학년(p<.001), 학교성적(p<.01)이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변인이었고, 중학생이 현재 자신의 미래 진로계획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군 지역

의 학생이, 여학생이, 1학년 학생이, 성적이 상인 학생이 동아리활동에도 더 많이 참여하고 있었다.

예술·체육활동은 성별(p<.001), 학년(p<.001), 학교성적(p<.001)이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변인이었고 지역과 진로계획 여부는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아니었다. 즉 예술·체육활동은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2학년생 보다는 1학년생이, 학교성적이 상인 학생이 보다 낮은 학생보다 더 많이 참여하고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자유학기제의 모든

〈표 4〉 개인적 변인에 따른 자유학기제 활동방법

구분			수업형태		초청특강		동아리		체험참여		기타		전체	
			참여	불참	참여	불참	참여	불참	참여	불참	참여	불참		
지역	시	n	163	151	29	285	175	139	167	147	7	307	314	
		%	51.9	48.1	9.2	90.8	55.7	44.3	53.2	46.8	2.2	97.8		
	군	n	51	86	30	107	92	45	84	53	4	133	137	
		%	37.2	62.8	21.9	78.1	67.2	32.8	61.3	38.7	2.9	97.1		
χ^2			8.25**		13.45***		5.15*		2.55		.19			
성별	남	n	99	127	29	197	134	92	118	108	7	219	226	
		%	43.8	56.2	12.8	87.2	59.3	40.7	52.2	47.8	3.1	96.9		
	여	n	115	110	30	195	133	92	133	92	4	221	225	
		%	51.1	48.9	13.3	86.7	59.1	40.9	59.1	40.9	1.8	98.2		
χ^2			2.41		.03		.01		2.17		.83			
학년	1	n	138	81	26	193	159	60	151	68	4	215	219	
		%	63.0	37.0	11.9	88.1	72.6	27.4	68.9	31.1	1.8	98.2		
	2	n	76	156	33	199	108	124	100	132	7	225	232	
		%	32.8	67.2	14.2	85.8	46.6	53.4	43.1	56.9	3.0	97.0		
χ^2			41.36***		.55		31.65***		30.49***		.67			
성적	상	n	71	65	22	114	80	56	83	53	3	133	136	
		%	52.2	47.8	16.2	83.8	58.8	41.2	61.0	39.0	2.2	97.8		
	중	n	119	114	30	203	139	94	131	102	4	229	233	
		%	51.1	48.9	12.9	87.1	59.7	40.3	56.2	43.8	1.7	98.3		
		하	n	24	58	7	75	48	34	37	45	4	78	82
		%	29.3	70.7	8.5	91.5	58.5	41.5	45.1	54.9	4.9	95.1		
χ^2			13.33***		2.64		.04		5.31		2.59			
진로계획	있다	n	89	94	26	157	115	68	100	83	7	176	183	
		%	48.6	51.4	14.2	85.8	62.8	37.2	54.6	45.4	3.8	96.2		
	약간	n	103	119	23	199	127	95	132	90	3	219	222	
		%	46.4	53.6	10.4	89.6	57.2	42.8	59.5	40.5	1.4	98.6		
		없다	n	22	24	10	36	25	21	19	27	1	45	46
		%	47.8	52.2	21.7	78.3	54.3	45.7	41.3	58.7	2.2	97.8		
χ^2			.20		4.68		1.82		5.22		2.59			
전체		n	214	237	59	392	267	184	251	200	11	440	451	
		%	47.5	52.5	13.1	86.9	59.2	40.8	55.7	44.3	2.4	97.6		

※ *p<.05 **p<.01 ***p<.001

활동 즉 진로탐색활동, 학생선택활동, 동아리활동, 예술·체육활동에 공통으로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변인은 성별, 학년, 학교성적이었다. 지역에 따라 진로탐색활동, 학생선택활동, 동아리활동을 선택하는 정도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었고, 미래의 진로계획 여부는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아니었다. 영향은 미치는 변인 중 남학생과 여학생, 학교성적이 상인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 사이에 자유학기제 활동 참여율에 차이를 나타내었는데, 남학생과 학교 성적이 낮은 학생들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이 지속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개인적 변인에 따른 자유학기제 활동장소

자유학기제 활동은 주로 어느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참여한 활동유형은 중학생의 개인적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자유학기제 관련 활동을 현재 하고 있거나 또는 경험이 있는 모든 장소에 대하여 각각 표기토록 하였다.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전체적으로 자유학기제 활동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는 학교(98.2%)였으며, 지역사회의 대학 및 각종 기관을 이용한 경우는 12.2%였다. 이러한 결과에서 자유학기제가 학생들의 진로탐색에 도움을 주기 위한다는 목적을 상기한다면 학교 뿐 아니라 다양한 직업세계를 경험해 볼 수 있는 지역사회의 각종 시설을 활용하는 기회가 좀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 하겠다.

자유학기제 활동장소는 개인적 변인인 지역, 성별,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지역에 따라서 군 지역의 학생들은 시 지역의 학생들에 비해 지역사회의 대학 및 각종 기관을 더 많이 이용하고 있었으며($p < .001$), 성별에 따라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지역사회의 대학 및 각종 기관을 더 많이 이용하고 있었다($p < .01$). 학년별에 따라서 1학년 학생의 경우는 2학년 학생보다 학교 내에서의 활동이 더 많았으며($p < .05$), 지역사회의 대학 및 각종 기관을 이용하는 활동은 2학년 학생이 더 많았다 ($p < .05$). 자유학기제 활동에서 작년 보다 올해의 경우 지역사회의 각종 기관을 활용하는 경우가 줄었다고 한 것은 올해는 아직 자유학기제 활동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

아닌가 여겨진다.

개인적 변인 중에서 중학생의 학교성과 미래의 진로계획 여부는 자유학기제 활동을 어느 장소에서 하느냐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아니었다.

3) 개인적 변인에 따른 자유학기제 활동방법

자유학기제 활동을 주로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으며, 활동방법은 중학생의 개인적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자유학기제 활동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에 대하여 경험이 있는 방법들에 대하여 각각 표기토록 하였다.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자유학기제 활동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활동방법으로 동아리 활동을 한다는 학생이 전체 451명 중 26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체험·참여 활동을 한 학생이 251명이었고, 수업형태의 활동을 한 학생은 214명이었다. 초청특강의 경우는 59명이었다. 즉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들은 과반수 이상이 자유학기제 활동방법으로 동아리활동, 체험 및 참여활동을 주로 하고 있으며, 수업형태의 활동을 하는 경우도 거의 절반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자유학기제의 활동방법은 지역, 학년, 학교성과와 같은 개인적 변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에 따라서 시 지역의 학생들은 군지역의 학생보다 수업형태의 활동을 더 많이 하고 있으나($p < .01$), 초청특강과 동아리 활동은 군지역의 학생들이 더 많이 활용하는 활동방법이었다($p < .001$, $p < .05$). 학년별에 따라서 살펴보면 1학년 학생이 2학년 학생에 비해 수업형태의 활동 뿐 아니라 동아리 활동과 체험·참여 활동을 하는 비율도 훨씬 높았다($p < .001$). 이러한 결과를 보면, 지난 해에 자유학기제를 경험했었던 2학년 학생들에 비해 올해 자유학기제 활동을 하고 있는 1학년 학생들이 보다 더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학교성적 수준에 따라서 성적이 상 또는 중 정도의 학생은 하 정도의 학생에 비하여 수업형태의 자유학기제 활동을 더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성적이 비교적 하인 학생들의 경우는 수업형태의 활동은 그다지 선호하지 않지만 동아

〈표 5〉 개인적 변인에 따른 자유학기제 활동 담당자

구분		학교교사		지역사회 및 외부강사		친구들		기타		전체	
		참여	불참	참여	불참	참여	불참	참여	불참		
지역	시	n %	211 67.2	103 32.8	210 66.9	104 33.1	3 1.0	311 99.0	1 0.3	313 99.7	314
	군	n %	111 81.0	26 19.0	53 38.7	84 61.3	15 10.9	122 89.1	1 0.7	136 99.3	
	χ^2		8.93***		31.19***		24.86***		.37		
성별	남	n %	150 66.4	76 33.6	145 64.2	81 35.8	3 1.3	223 98.7	1 0.4	225 99.6	226
	여	n %	172 76.4	53 23.6	118 52.4	107 47.6	15 6.7	210 93.3	1 0.4	224 99.6	225
	χ^2		5.60*		6.37**		8.39**		.00		
학년	1	n %	179 81.7	40 18.3	142 64.8	77 35.2	13 5.9	206 94.1	1 0.5	218 99.5	219
	2	n %	143 61.6	89 38.4	121 52.2	111 47.8	5 2.2	227 97.8	1 0.4	231 99.6	232
	χ^2		22.28***		7.46**		4.20*		.00		
성적	상	n %	99 72.8	37 27.2	83 61.0	53 39.0	5 3.7	131 96.3	0 0.0	136 100.0	136
	중	n %	170 73.0	63 27.0	140 60.1	93 39.9	8 3.4	225 96.6	1 0.4	232 99.6	233
	하	n %	53 64.6	29 35.4	40 48.8	42 51.2	5 6.1	77 93.9	1 1.2	81 98.8	82
	χ^2		2.25		3.78		1.17		1.73		
진로계획	있다	n %	135 73.8	48 26.2	101 55.2	82 44.8	8 4.4	175 95.6	1 0.5	182 99.5	183
	약간	n %	157 70.7	65 29.3	135 60.8	87 39.2	9 4.1	213 95.9	0 0.0	222 100.0	222
	없다	n %	30 65.2	16 34.8	27 58.7	19 41.3	1 2.2	45 97.8	1 2.2	45 97.8	46
	χ^2		1.42		1.31		.47		4.15		
전체		n %	322 71.4	129 28.6	263 58.3	188 41.7	18 4.0	433 96.0	2 0.4	449 99.6	451

※ *p<.05 **p<.01 ***p<.001

리 활동방법을 활용하는 비율은 과반수 이상으로 보다 수업형태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활동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었다.

4) 개인적 변인에 따른 자유학기제 활동 담당자

자유학기제 활동을 누가 지도하거나 또는 담당하고 있으며, 이는 중학생의 개인적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중학생들의 진행하는 자유학기제의 활동들에

대한 지도자 또는 담당자들을 모두 표기토록 하였고,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자유학기제 활동에서 학교교사의 지도를 받았거나 활동의 담당자가 학교교사라고 한 응답은 전체의 71.4%였으며, 지역사회 및 외부강사의 지도를 받았다고 응답한 경우도 58.3%였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교교사의 지도하에서 자유학기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등 외부인사들의 도움이나 지도를 받는 경우도 과반수 이상임을 알

〈표 6〉 자유학기제 활동에 대한 인식

구분		도움 정도			도움 부분				전체		
		많이	보통	약간	성적 부담 감소	선호 분야 탐색	지역교류, 진로탐색	기타			
지역	시	n %	113 36.0	108 34.4	93 29.6	123 39.2	109 34.7	43 13.7	39 12.4	314	
	군	n %	63 46.0	44 32.1	30 21.9	54 39.4	48 35.0	19 13.9	16 11.7		137
	χ^2		4.68			.05					
성별	남	n %	96 42.5	68 30.1	62 27.4	88 38.9	72 31.9	35 15.5	31 13.0	226	
	여	n %	80 35.6	84 37.3	61 27.1	89 39.6	85 37.8	27 12.0	24 10.7		225
	χ^2		3.15			3.00					
학년	1	n %	120 54.8	63 28.8	36 16.4	75 34.2	92 42.0	36 16.4	16 7.3	219	
	2	n %	56 24.1	89 38.4	87 37.5	102 44.0	65 28.0	26 11.2	39 16.8		232
	χ^2		48.53***			19.64***					
성적	상	n %	48 35.3	44 32.4	44 32.4	53 39.0	45 33.1	20 14.7	18 13.2	136	
	중	n %	96 41.2	79 33.9	58 24.9	103 44.2	77 33.0	29 12.4	24 10.3		233
	하	n %	32 39.0	29 35.4	21 25.6	21 25.6	35 42.7	13 15.9	13 15.9		
χ^2		2.77			9.48						
진로 계획	있음	n %	74 40.4	59 32.2	50 27.3	68 37.2	65 35.5	26 14.2	24 13.1	138	
	약간	n %	91 41.0	73 32.9	58 26.1	92 41.4	74 33.3	29 13.1	27 12.2		222
	없음	n %	11 23.9	20 43.5	15 32.6	17 37.0	18 39.1	7 15.2	4 8.7		
χ^2		5.06			1.72						
계	n %	176 39.0	152 33.7	123 27.3	177 39.2	157 34.8	62 13.7	55 12.2	451		

※ *p<.05 **p<.01 ***p<.001

수 있다.

지역사회 및 외부인사의 경우는 중학교가 위치해 있는 지역사회의 대학이나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해 지도를 맡기는 경우들이 있어 중학생들이 보다 다양한 분야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겠다.

자유학기제 활동의 지도 및 담당자가 누구였는가에 대해서는 지역, 성별, 학년의 개인적 변인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었다.

지역별에 따라서 학교교사가 자유학기제 활동의 지도자 및 담당자인 경우는 군 지역의 경우가 더 많았으며(p<.001), 지역사회 및 외부인사인 경우는 시 지역의 경우가 더 많았다(p<.001). 군 지역의 학생들은 시 지역의 학생들보다 활동담당자가 친구라고 한 경우가 더 많았다(p<.001). 이러한 현상은 군 지역보다는 도시 지역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사들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

펴보면, 여학생들은 남학생보다 학교 교사($p < .05$)나 친구들($p < .01$)이 자유학기제 활동의 지도자 또는 담당자인 경우가 더 많았으며, 남학생들은 여학생보다 지역사회 및 외부인사($p < .01$)인 경우가 더 많았다. 남학생들이 여학생보다 학교 내 보다 학교 외의 인사나 강사를 활동의 지도자나 담당자로 더 받아들이는 이러한 경향은 남학생들이 진취적인 면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 여겨진다. 학년별에 따라서 살펴보면, 1학년 학생들이 2학년 학생보다 학교교사($p < .001$), 지역사회 및 외부강사($p < .01$), 친구들($p < .05$)을 모두 자유학기제 활동의 지도자 및 담당자로 수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1학년 학생들이 자유학기제 활동을 보다 적극적이고 있는 현상의 발로인 것으로 보인다.

2. 자유학기제 활동에 대한 인식

자유학기제 활동에 대하여 중학생들은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즉 자유학기제 활동이 자신에게 얼마나 도움이 도움이 되고, 어떠한 점에서 도움이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러한 내용들은 중학생의 개인적 변인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그 결과 전체적으로 중학생들의 39.0%는 자유학기제 활동이 자신들에게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하였으며, 33.7%는 보통 정도로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하였고, 약간 또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27.3%였다. 즉 조사대상 중학생 451명 중 328명인 72.3%가 자유학기제 활동이 자신들에게 보통 이상으로 도움이 되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자유학기제 활동에 대한 중학생의 이러한 인식이 개인적 변인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군지역의 중학생이, 남학생이, 1학년이, 학교성적이 중간정도인 학생이, 미래에 자신이 희망하는 진로나 직업에 대하여 약간 생각해 본적이 있다는 학생이 자유학기제 활동이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는 비율이 약간 높았다. 특히 학년별에 따라서는 1학년 학생이 2학년 학생에 비해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수준으로 ($p < .001$) 자유학기제 활동이 도움이 된다고 인식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1학년 학생들의 경우 현재 자유학기제 활동을 경험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또한 강원도의 중학교 현장에서 자유학기제 운영이 전면 실시된 시점이 2015년이며, 올해가 운영 3년째임을 감안하면 매년 점차적으로 자유학기제 활동이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자유학기제 활동이 어떤 부분에서 도움이 되고 있다고 인식하는지를 살펴본 결과 전체적으로 중학생들은 학교성적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었으며(39.2%), 자신이 선호하는 분야를 탐색할 수 있었다(34.8%)고 하였다. 그 외에 지역사회와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거나 직업 및 진로탐색을 할 수 있었다가 13.7%, 기타가 12.2%였다. 이는 자유학기제가 시험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진로탐색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 맞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전반적인 흐름이 개인적 변인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 본 결과 시, 군 지역에 재학하는 중학생, 남·여학생 모두 학교성적에 대한 부담 감소가 제일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학년별에 따라서는 1학년생의 경우는 자신이 선호하는 분야를 탐색할 수 있는 점이 가장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하였으나 지난 해에 자유학기제 활동을 경험했던 2학년 학생의 경우는 성적부담 감소를 가장 큰 도움 요소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학년 변인은 통계적으로도 $p < .001$ 수준에서 의미있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었다. 이 또한 학교현장에서 자유학기제 운영에 대한 경험이 축적되면서 매년 새롭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학생들에게 제공한 결과라고 보여진다. 학교성적이 중간정도인 학생과 자신의 미래 직업과 진로를 막연히 생각해 본적 있다는 학생 집단 역시 성적부담 감소를 자유학기제가 자신에게 제일 도움이 되는 요소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3. 자유학기제 활동에서의 가정교과 및 의생활 영역 관련 활동

자유학기제 활동에서 가정교과 및 의생활 영역과 관련한 활동을 해 보았는지를 알아보고, 이러한 활동들이 중학생의 개인적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

〈표 7〉 자유학기제 활동에서의 가정교과 및 의생활 영역 관련 활동

변인	구분	의생활		식생활		가족		경제,관리		기타		전체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지역	시	n	9	112	98	23	2	119	6	115	8	113	121
		%	7.4	92.6	81.0	19.0	1.7	98.3	5.0	95.0	6.6	93.4	
	군	n	3	21	4	20	3	21	5	19	15	9	24
		%	12.5	87.5	16.7	83.3	12.5	87.5	20.8	79.2	62.5	37.5	
χ^2		.68		39.72***		7.08*		7.20*		46.9***			
성별	남	n	5	73	55	23	3	75	9	69	8	70	78
		%	6.4	93.6	70.5	29.5	3.8	96.2	11.5	88.5	10.3	89.7	
	여	n	7	60	47	20	2	65	2	65	15	52	67
		%	10.4	89.6	70.1	29.9	3.0	97.0	3.0	97.0	22.4	77.6	
χ^2		.77		.002		.08		3.76*		3.98*			
학년	1	n	4	91	66	29	1	94	6	89	16	79	95
		%	4.2	95.8	69.5	30.5	1.1	98.9	6.3	93.7	16.8	83.2	
	2	n	8	42	36	14	4	46	5	45	7	43	50
		%	16.0	84.0	72.0	28.0	8.0	92.0	10.0	90.0	14.0	86.0	
χ^2		5.99*		.10		4.75*		.63		.19			
학교성적	상	n	3	42	33	12	1	44	5	40	7	38	45
		%	6.7	93.3	73.3	26.7	2.2	97.8	11.1	88.9	15.6	84.4	
	중	n	7	75	58	24	1	81	2	80	14	68	82
		%	8.5	91.5	70.7	29.3	1.2	98.8	2.4	97.6	17.1	82.9	
하	n	2	16	11	7	3	15	4	14	2	16	18	
	%	11.1	88.9	61.1	38.9	16.7	83.3	22.2	77.8	11.1	88.9		
χ^2		.35		.93		10.87**		9.40**		.39			
진로계획	있음	n	3	56	45	14	3	56	7	52	8	51	59
		%	5.1	94.9	76.3	23.7	5.1	94.9	11.9	88.1	13.6	86.4	
	약간	n	7	67	49	25	1	73	2	72	13	61	74
		%	9.5	90.5	66.2	33.8	1.4	98.6	2.7	97.3	17.6	82.4	
없음	n	2	10	8	4	1	11	2	10	2	10	12	
	%	16.7	83.3	66.7	33.3	8.3	91.7	16.7	83.3	16.7	83.3		
χ^2		2.04		1.67		2.31		2.31		.40			
전체	n	12	133	102	43	5	140	11	134	23	122	145	
	%	8.3	91.7	70.3	29.7	3.4	96.6	7.6	92.4	15.9	84.1		

※ *p<.05 **p<.01 ***p<.001

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표 7〉과 같다. 가정교과 관련 활동을 현재 하고 있거나 해본 경험이 있는 중학생은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 451명 중 145명(32.3%)이었다. 이들을 대상으로 의생활 영역을 포함한 가정교과 관련 활동에 참여했는지의 여부를 각 영역별로 각각 표기토록 하였다. 그 결과 자유학기제 활동으로 가장 많이 이루어진 가정교과 영역은 식생활 영역으로 102명이었고, 의생활 영역이 12명, 경제와 관리 영역이 11명, 가족 영역이 5명이었으며 그 외 영역의 경

우는 23명이었다. 가정교과 중 식생활 영역의 활동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 이러한 결과는 42개 연구학교를 대상으로 연구한 이은영 외(2014)의 연구와도 일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가정교과의 다른 영역들에 비해 비교적 실천적이고 다양한 활동들이 가능하여 자유학기제 활동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다고 여겨지는 의생활 영역의 활동이 아직은 매우 부진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활동들이 개인적 변인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조사대상자가

〈표 8〉 의생활 영역 요구도

변인	M (SD)	변인	M (SD)
옷차림	2.74 (1.00)	의복관리	2.87 (1.09)
의복선택	2.68 (.98)	옷만들기와 고쳐입기	2.97 (1.18)

전체 : 2.79 (.95)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따라 식생활 영역은 시 지역의 학생이 군 지역의 학생보다 월등히 많은 활동을 하고 있으며($p < .001$), 반면 가족 영역($p < .05$)과 경제 및 관리 영역($p < .05$), 기타 영역($p < .001$)은 군 지역의 학생들이 시 지역의 학생보다 더 많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생활 영역은 군 지역 학생이 시 지역 학생보다 자유학기제에서 더 많이 활동한다고 하였으나 이는 의미있는 차이는 아니었다.

성별에 따라서는 의생활, 식생활, 가족 영역에서 모두 비슷한 정도의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였으나 경제 및 관리 관련 자유학기제 활동은 여학생 보다 남학생이 더 많이 하고 있으며($p < .05$), 기타 영역은 오히려 여학생이 더 많이 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p < .05$).

학년별에 따라서는 자유학기제 활동을 작년 경험했던 2학년의 경우가 현재 활동을 진행 중인 1학년에 비하여 의생활 영역 활동($p < .05$)과 가족 영역 활동($p < .05$)을 더 많이 하였다.

학교성적별에 따라서 성적이 낮은 학생들이 성적이 중간 이상의 학생들에 비하여 가족 영역과 관련한 자유학기제 활동을 더 많이 하고 있었고($p < .01$), 경제 및 관리 영역의 활동도 비교적 성적이 낮은 학생이 더 많이 하고 있었다($p < .01$).

앞으로 희망하는 진로 및 직업에 대한 계획 정도에 따라서 가정교과의 영역들을 대상으로 얼마나 활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유의미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하면, 의생활 영역은 자유학기제 활동에서 2학년 학생이 현재 1학년 학생보다 더 많이 선택하여 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가정교과 중 식생활 영역은 시 지역 학생이 군 지역 학생보다 더 많이 활동하였으며, 가족 영역은 군 지역의 학생이, 2학년 학생이, 성적이 낮은 학생이 더 많이 자유학기제 활동으로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및 관리 영역의 활동은 군 지역의 학생이,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더 많이 선택하여 활동하였으며, 학교 성적이 중간 정도인 학생은 성적이 낮거나 높은 학생에 비하여 잘 선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영역 활동의 경우는 군 지역의 학생이 시 지역의 학생보다 훨씬 더 많이 활동하고 있으며, 남학생 보다는 여학생이 더 많이 선택하여 활동하였다. 개인적 변인 중 중학생 자신의 진로계획 유무는 가정교과와 관련한 자유학기제 활동에서 영역을 선택하는데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4. 자유학기제에서 의생활 영역 활동 요구도

가정교과는 이론적인 면 이외에 기술적이고 실천적인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교과이기 때문에 자유학기제 활동에서 다양한 방향으로 응용될 수 있다. 이에 가정교과 중 의생활 영역의 내용들에 대하여 중학생들이 얼마나 자유학기제 활동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개인적 변인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제시된 의생활 영역의 내용들은 중학교 「기술·가정」교과 중 의생활 영역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내용들이다(〈표 8〉참고).

중학생들은 의생활 영역의 내용들을 자유학기제에서 활동하고 싶다는 정도는 최저 1점에서 최고 5점까지의 분포 중에서 평균 2.79점 정도의 요구도를 나타내었다. 영역별로는 옷 만들기과 고쳐입기와 관련한 활동 요구도(2.97점)가 가장 높았으며, 의복관리, 옷차림, 의복선택의 순으로 요구하고 있었다. 이 결과를 보면, 중학생들은 자유학기제 활동으로 옷만들기와 고쳐입기와 관련한 활동을 좀 더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중학생들이 전반적인 의생활 영역에 대하여 학습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정도가 5점 중 3.4점 정도라고 한 김경숙(2010)의 연구결과에 비해 낮은 요구도 점수라고 하겠다.

의생활 영역에 대한 자유학기제 활동 요구가 중

요구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의 목적은 자유학기제 활동에 참여하였거나 참여 중인 1, 2학년 중학생을 대상으로 자유학기제 활동의 실태와, 인식, 요구도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자유학기제 활동을 보다 학생들의 요구에 맞도록 발전시킬 뿐 아니라 가정교과에서 의생활 영역의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중학생들은 자유학기제 활동에서 진로탐색 활동, 학생선택활동, 동아리활동, 예술·체육활동 등 거의 모든 활동에 비슷한 수준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자유학기제 활동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는 학교였으며 일부 지역사회 대학 및 각종 기관을 이용한 경우도 있었다. 자유학기제 활동방법은 동아리 활동, 체험참여 활동, 수업형태의 활동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자유학기제 활동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교교사의 지도를 받고 있으며, 지역사회 등 외부 인사들의 도움이나 지도를 받는 경우도 과반수 이상이었다. 이러한 자유학기제 활동실태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변인은 지역과 학년이었고, 성별과 학교성적은 활동실태의 내용에 따라 선택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반면 미래의 진로계획 유무는 중학생의 자유학기제 활동실태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아니었다.

2) 중학생들은 자유학기제 활동이 자신에게 보통 이상으로 도움이 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가장 도움이 되는 부분은 학교성적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자신이 선호하는 분야를 탐색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 외에도 지역사회와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거나 직업 및 진로탐색을 할 수 있었다는 반응도 있었다. 이러한 자유학기제 활동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변인은 학년이였다. 즉 1학년이 자유학기제가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있으며, 자신이 선호하는 분야를 탐색할 수 있는 점이 가장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3) 자유학기제 활동을 하면서 가정교과 관련 활동을 현재 하고 있거나 해본 경험이 있는 중학생은 전체 451명 학생 중 약 1/3 정도인 145명이였다. 가정교과 관련 활동 중 가장 많은 활동이 이루어진 영역은 식생활 영역이었고, 의생활 영역은

상대적으로 매우 적었다.

4) 중학생들이 의생활 영역의 내용들을 자유학기제에서 활동하고 싶다는 요구도 점수는 1점부터 5점까지의 분포중에서 2.79점 정도였다. 영역별로는 옷 만들기과 고쳐입기와 관련한 활동 요구도가 가장 높았다. 의생활 영역에 대한 자유학기제 활동 요구도는 군 지역의 학생, 여학생, 1학년 학생, 성적이 상위권인 학생, 미래에 대한 희망 직업이나 진로에 대하여 구체적인 계획이 있거나 또는 약간 계획하고 있는 학생의 경우일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결론 및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자유학기제 활동실태를 보면, 활동장소가 거의 학교 내에서 교사들의 지도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교 성적이 낮은 학생들의 참여율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자유학기제의 기본 취지에 따라 학생들에게 시험의 부담을 없애고, 다양한 수업운영을 통하여 꿈과 끼를 찾고, 진로탐색을 도와주기 위한 자유학기제 활동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 활용이 확대되어야 할 뿐 아니라 성적이 낮은 학생들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가정교과와 관련한 자유학기제 활동 중 식생활 영역에 비하여 의생활 영역의 활동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생활 영역은 비교적 실천적이고 다양한 활동들이 가능한 부분 많이 함유하고 있는 영역이다. 따라서 의생활 영역의 활동들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아이템들을 개발하고 프로그램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셋째, 앞으로 자유학기제 활동이 보다 다양화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제한된 지역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학생의 구체적인 요구 등을 살펴 볼 수 있는 연구가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원도 교육청. (2015). *자유학기제 수업사례 자료집*. 강원도교육청.
- 강원일보사, 강원도 교육청. (2015). *학교와 지역사회의 공생 자유학기제 보고서*. 강원도 교육청.

- 교육부. (2013).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범 운영 계획(안)*. 교육부 공교육진흥과 보도자료.
- 교육부. (2015). *실과(기술·가정)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5-74호).
- 교육부, 대전광역시교육청. (2016).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수·학습자료: 기술가정*. 교육부, 대전광역시교육청.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6). *자유학기제 교과 연계 주제선택 활동 사례집: 과학, 기술가정*. 한국교육개발원.
- 김경숙. (2010). 「기술·가정」교과 중 의생활 영역에 대한 중학생의 학습활용도에 관한 연구.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12(4), 159-171.
- 김성숙, 김정현, 정인경. (2017). 자유학기제 운영에 대한 가정과 교사의 인식분석. *한국가정교육학회지* 29(1), 111-124.
- 김은정. (2013a). 가정교과의 진로교육과 자유학기제의 활용방안. *한국가정교육학회 학술대회*, 67-90.
- 김은정. (2013b). 자유학기제 도입에 따른 기술·가정교과 통합 진로교육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교육학회지*, 25(3), 105-121.
- 김이경, 민수빈. (2015). 자유학기제의 도입에 따른 교사들의 직무부담 분석. *한국교원교육연구*, 32(2), 181-203.
- 배운정, 이윤정. (2017). 2015 중등 가정교과 교육과정의 ESD 내용 분석과 자유학기제 수업의 교수·학습지도안 개발. *한국가정교육학회 학술대회*, 141-141.
- 유태명. (2003). 가정교육과정 구성을 위한 가정과의 성격, 내용구조, 가정교육을 통하여 갖추어야 할 소양에 관한 기초연구(1) : 델파이 조사연구. *대한가정학회*, 41(1), 149-171.
- 이윤정. (2013). 자유학기제를 통한 가정교과의 진로교육. *한국가정교육학회 학술대회*, 94-95.
- 이은영, 손주영, 김예슬, 조재순. (2014). *자유학기제 1차 연구학교의 가정교과 관련 운영실태*. *한국가정교육학회지*, 26(3), 69-89.
- 이지연. (2013a). 자유학기제의 운영방안: 교과 통합 진로교육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교육학회 학술대회*, 23-51.
- 이지연. (2013b). 진로중심 자유학기제 도입의 타당성. *한국진로교육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 77-102.
- 장명옥. (1981). *가정학원론*. 경기 파주: 교문사.
- 채정현, 박미정, 김선교, 한주. (2017). *2015개정 교육과정 반영 가정교육론*. 경기 파주: 교문사.
- 홍창남, 김혜영. (2016). 자유학기제 운영 과정에 대한 사례 연구. *한국교원교육연구*, 33(2), 157-179.
- Brown, M. M., & Paolucci, B. (1979). *Home Economics: A Definition*. Washington D.C. : American Home Economics Association.